

나주시 스마트워치 보급 치매 잡는다

나주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전국 최초...고령자 100명 착용 위치 정보·심리 수치 실시간 측정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공모에 선정된 나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워치를 치매안심마을 주민 100명에게 보급해 치매 관리에 나선다. 나주시는 보건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나주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해 나주 치매안심마을에 사는 고령자의 생체·심리 건강을 돌보는 사업이다.

우선 치매안심마을에 사는 고령자 100명을 뽑아 생체신호정보 알림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 워치' (시계)를 나눠준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다시면 화동, 산포면 매성, 반남면 상대, 세지면 섬멸, 빛가람동 LH5-6 단지 등 5곳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해왔다.

스마트 시계는 착용자의 위치 정보와 산소포화도·활동량 등 생체 건강 신호,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 수치를 실시간 측정한다.

치매 환자나 고령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를 감지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는 등 치매 관리 맞춤형 기기 역할을 한다.

나주지역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지난 2020



윤병태(왼쪽 네번째) 나주시장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선정을 기념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년부터 30%를 넘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치매 등록환자는 3667명으로, 전년(3153명)보다 16.3% (514명)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 나주 노인 인구는 3만7415명으로, 치매안심센터 검진 인력(총 4명) 1인당 검진해야 할 대상은 9354명에 달해 선제적인 치매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주시는 지난 2022년 9월 빛가람혁신도시 이 전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양대학교 생체신호정보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세 차례에 걸쳐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실증 연구를 하기도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삶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웰니스'(웰빙+피트니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스트레스 관련한 설문에 응답한 뒤 기기를 착용하고 일상의 산소포화도와 심장박동 변이도, 신체 활동 정도, 수면량, 넘어짐 등 건강 정보를 실시간 확인·관리하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한양대 생체신호정보연구센터를 찾아 '생체·심리 연계 웰니스 케어 시스템 통합 플랫폼'을 점검하기도 했다. 점검에는 나주시 시장연구모임 '뜻세움'과 지역 소방서, 경찰서 직원 10명이 함께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치매 통합 서비스 추진을 위해 스마트 워치 보급으로 치매 예방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을 이루겠다"며 "지역 어르신의 노인의 자립역량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사의재 저잣거리서 8월 한달간 주말 공연

마당극·풍물공연 등 흥겨운 무대

강진 사의재 저잣거리 일대에서 8월 한 달 주말마다 마당극 등 다채로운 무대가 열린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처음 선보이는 야간 공연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을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진군이 처음 선보이는 야간 공연은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진행된다. 일요일 마당극은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2회에 걸쳐 펼쳐진다.

첫 야간 공연을 시작한 날에는 관람객 300여 명이 모여 흥겨운 무대를 즐겼다.

야간 공연에서는 마당극 '다산의 꿈'과 풍물공연 길놀이, 한국무용 춤곡 검무, 무술 시연, 단체 안무 등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무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직접 꾸민다.

임석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야간 공연은 우리 강진에서 지속해서 고민하는 밤 관광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지난달 29일 처음 선보인 야간 공연 '조만간'이 강진군 사의재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오랫동안 강진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화순군, 사회적기업 인력 지원 참여 기업 모집

화순군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전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사회적기업은 3년간 월 250만원 내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이다.

또 지원 인원 한도를 모두 채운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 채용 경우 1명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화순군 경제와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에 참여하는 함평 주포한옥마을 전경. <함평군 제공>

함평군 이달부터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

1박 4만~2만원 혜택

함평군이 전남·광주 외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진행한다

함평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이어진다. 전남·광주 외 지역 거주자가 함평군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1박 기준 요금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1인 1회 최대 10박(연박)까지 지원된다.

할인은 예산 소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이 지정한 숙박업소 중 1개소를 선택해 전화 예약한 뒤 함평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함평군 관광정책실 담당자 이메일(sbp051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제원 함평군 관광정책실장은 "오는 9월과 10월에 열리는 모악산 꽃무릇 축제, 국향대전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함평을 방문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세얼굴

"농어촌 현실 맞춤형 치안활동 펼칠 것"

신행희 장흥경찰서장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안전한 장흥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장흥경찰서장에 부임한 신행희(59) 서장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신 신임 서장은 장흥경찰서 최초 여성 경찰서장으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서장은 "장흥군 인구의 65세 이상이 37%이고, 여성은 51%, 미성년자는 11% 등 비중을 차



지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치안 서비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주출신인 신 서장은 지난 1986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해회사사과장, 서초 수사과장, 수서 수사과장, 방배 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23년간 수사 분야에 근무하면서 수사전문경찰을 뜻하는 '수사통'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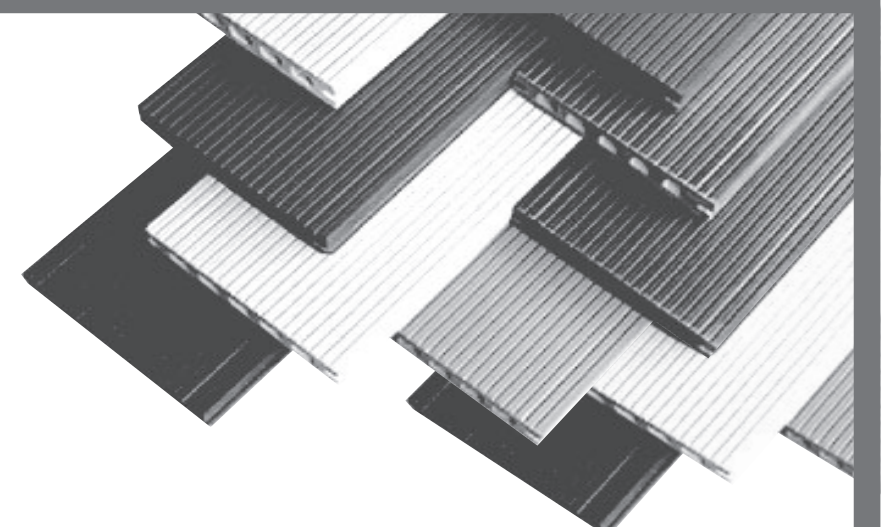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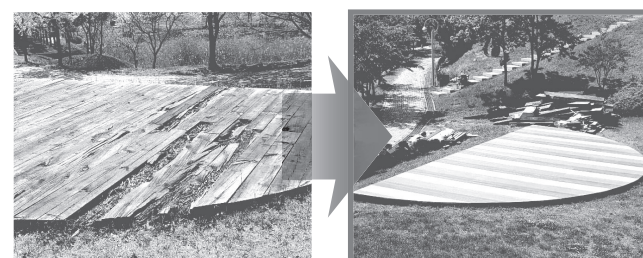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